

북한서적 반입 공식허용을 보며

지난해 여름 '東京 북페어' 참관차 일본에 들렀을 적의 일이다. 기왕 간 김에 일본의 서점가도 두루 둘러보자는 생각에서 고서점 밀집지역으로 유명한 東京 神田거리를 쪽 훑어보게 되었는데, 일행중 일본사정에 밝은 한 출판사대표의 안내로 북한책을 전문으로 파는 서점을 구경할 수 있었다. 북한책 '만'을 파는 곳은 아니었지만, 서가 한면을 다 차지할 만큼 많은 북한책을 직접 보고 들춰보기는 그때 그곳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끝내 한권도 사지는 못했다. 지적 호기심으로 말하자면야 두세권쯤 사오고 싶었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럴 경우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지닐 수밖에 없는 소심증이 그 호기심을 애써 억제시켰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북한책이 공식적으로 반입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주식회사 남북교역(대표 김승균)이 신청한 '북한서적 반입과 북한주민 접촉'을 통일원측이 승인함으로써 국역「이조실록」을 비롯해 「선역판만대장경」 「팔만대장경해제」 등 북한에서 만들어진 책이 공식적으로 반입·배포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길이 '전적으로' 개방적이진 못하지만, 어쨌든 선별적으로나마 북한의 순수학술서적이 반입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남북간 학술·출판 상호교류의 한 선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보다 활기찬 교류가 기대된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출판학회(회장 윤형두)가 "북한지역에 보존돼 있는 고서나 전적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45년 이후 어떤 책들이 출판됐는지 알아보자"는 취지 아래 통일원에 요청한 '남북한 도서목록 교환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신청'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판을 통한 남북교류가 이제 확실한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사실 그동안 북한책은, 엉뚱하게도 '外書' 취급을 받아왔다. 그것도 '특수자료'로 분류돼 인가를 받은 외서수입업체만이 북한책을 들여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공급해 왔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책은 외국간행물 수입관계법이 아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게 됨으로써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간 출판의 직접교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당국의 후속조치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8개월전 이국땅의 한 서점에서 느꼈던 어정쩡한 소심증이 새삼스러워질만큼 우리사회의 포용력이 이제 어쨌든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78호 / 1991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임무차장 — 尹東鎬
임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宰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橫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瑛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亨圭	鄭煥鍾	鄭雲暎	鄭晉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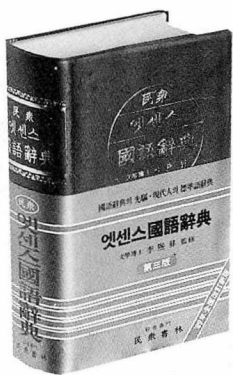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3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80호(3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愛센스 國語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는 프랑스소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1. 독자는 알제리에 사는 한 젊은 남자의 의식 속으로 빨려들어 갑니

다. 아랍인을 죽인다. 감옥에 갇힌다. 사형선고를 받는다. 이 인물은 '나'로 이야기하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를 소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알베로 까뮈의 이 소설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 반항인
- ② 이방인
- ③ 행복한 죽음
- ④ 시지프스의 신화

2. 반항아 자크와 이성적인 앙트완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대하소설 「티보가의 사람들」은 한 가문의 광대한 서사시이면서 동시에 제1차대전을 전후한 프랑스 사회의 전체상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소설 전통의 위대한 계승자로 평가받는 이 프랑스 작가는 누구입니까?

- ① 마르탱 뒤 가르
- ② 드리와 라 로셀
- ③ 로맹 가리
- ④ 조르주 베르나노스

3. 스탕달은 신문의 사회면에 실린 조그만 기사에서 이 작품의 영감

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야심만만한 시골청년의 출세와 파멸을 냉정하게 그린 이 소설에서 주인공 줄리앙 소렐은 끝내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 전락
- ② 희망
- ③ 적과 흑
- ④ 밤으로의 긴 여로

제76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6호 (1월 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72통, 이중 정답자는 67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I-① 막심 고리끼
- I-② 「어머니」

- II-① 프리츠프 카프카
- II-②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당첨자

서영하(충북 청주시 내덕동 36번지 청주대 중앙도서관 수서과)
이재원(서울시 도봉구 미아 3동 306-53)
김덕순(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92-10)
엄현주(부산시 동래구 연산2동 822-65번지)
이주용(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 APT 17동 1410호)